

# 건국이엔아이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 보고”

지난 12월 14일 대전 문화재청에서는 (주) 건국이엔아이(대표이사 박정렬)가 수행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의 성공적인 완료 보고와 이밖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향후 목조문화재 적용 방향에 대한 최종 보고 회의의 자리를 가졌다.

이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용역으로 건국이엔아이(주)가 추진한 연구 프로젝트이다. 지난 6월부터 해인사, 통도사 등 130여곳

의 화재안전진단을 통해 각종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주)건국이엔아이는 이날 보고에서 전국 중요목조문화재의 소방시설 실태와 화재 등 각종 위험의 노출정도 등을 조사, 발표하였으며 사찰 등 중요목조문화재 화재안전 기준(안)을 제작하였고, 비상대응대책, 문화재이윤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해인사 장경판전 가상화재 시뮬레이션을 선보여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인 대장경판을 사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상 화재 상황을 통해 화재 위험성을 경각시키고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사전 대책을 수립하였다.

(주)건국이엔아이는 이번 용역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지난 8월 초 선진화된 문화재 소방방재시스템 탐병을 계획, 우리나라 문화재 상황과 가장 유사한 일본의 와키야마현(和歌山縣) 분하정(分河町)에 위치한 분하사(古刹의 테라), 구도산(柳河町)에 위치한 분하사(古刹의 테라), 구도산(柳河町)에 위치한 분하사(古刹의 테라), 구도산(柳河町)에 위치한 분하사(古刹의 테라)에 있는 불상(佛堂)을 탐방(探訪)하여 부등당(부등당)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주)건국이엔아이의 박정렬 대표는 “지난 낙산사 화재에서 천년고찰인 목조건축물과 보물인 동종까지 화마에 손실되어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했다”며 “이번 중요목조문화재의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재해로부터 우리의 문화재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주)건국이엔아이는 각 문화재별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특성에 따른 안전한 소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건국이엔아이는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국내 목조문화재의 소방방재전문기업으로서 사찰 등 목조건축물에 대한 소방설계, 공사, 감리, 점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문화재 특성에 적합한 소방엔지니어링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 보존에 적극 동참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연구 보고회는 건국이엔아이 임직원과 문화재청 관계자, 대안불교 조계종, 소방방재청, 소방기술사, 소방방재공학부 교수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연구용역을 기초로 국내 목조문화재의 소방방재시스템을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중요목조문화재에 반영 될지 계획이다.

신희섭 팀장